

# SK 텔레콤, 2024 년 3 분기 실적 발표

## 3 대 AI 사업 본격 수익화로

## 글로벌 AI 컴퍼니 전환 앞당긴다

- 연결기준 매출 4 조 5,321 억원·영업이익 5,333 억원·순이익 2,802 억원 기록
  - 빠른 수익화 기대되는 AI 데이터센터·AI B2B·AI B2C 사업 매출 키우기 주력
  - 에이닷 가입자 550 만명 돌파, 엔터프라이즈 AI 수주 지속...AI 순항 시그널
  - 3 분기 주당 830 원 배당, 통신과 AI 핵심사업 성장 통해 기업가치 제고할 것
- [2024. 11. 06]

SK 텔레콤(대표이사 CEO 유영상, [www.sktelecom.com](http://www.sktelecom.com))이 2024 년 3 분기 실적으로 연결 기준 매출 4 조 5,321 억원, 영업이익 5,333 억원, 당기순이익 2,802 억원을 기록했다고 6 일 밝혔다.

매출은 로밍과 엔터프라이즈 등의 고른 성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전사적 AI 도입을 통한 효율화, O(Operation Improvement; 본원적 경쟁력 강화)로 인한 체질 개선 효과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7.1% 개선됐다.

별도 기준 매출은 3 조 2,032 억원, 영업이익 4,570 억원, 당기순이익 2,224 억원을 기록했다.

SKT 는 2021 년 11 월 인적분할 이후 3 년간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글로벌 AI 컴퍼니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닦아 왔다. 올해 AI 수익 모델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는 SKT 는 빠른 수익화가 기대되는 3 가지 사업, AI 데이터센터·AI B2B(기업사업)·AI B2C(개인서비스)에 선택과 집중해 AI 기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전략이다.

데이터센터 사업은 지속적으로 가동률이 상승함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14%의 매출 성장을 이뤘다. SKT 는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AI 데이터센터 사업으로 진화, 발전시켜 사업 성장률을 더욱 높인다는 목표 하에 AI 데이터센터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 가산 데이터센터에 준비중인 엔비디아 GPU 기반 AI 데이터센터는 12 월 개

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구독형 AI 클라우드 서비스 GPUaaS 도 함께 연내 출시 예정이다. 구독형 AI 클라우드 서비스는 GPU 자원을 직접 구매하기 힘든 국내 기업들에게 GPU 접근성을 높여주는 경쟁력 있는 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SKT는 국내 유일의 AI 데이터센터 테스트베드도 12월 판교에 오픈한다. 엔비디아, SK하이닉스 HBM을 포함한 첨단 AI 반도체와 차세대 액체 냉각 솔루션 등 SK그룹과 파트너사가 보유한 다양한 솔루션이 결집된 곳으로, SKT의 차별화된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혁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SKT는 중장기 전략으로 전국 단위의 AI 인프라를 구축해 나간다. 지역 거점 AI 데이터센터와 수도권 GPUaaS를 주축으로 하고, 기지국에는 에지 AI 기술을 도입해 전국 단위 AI 인프라로 진화시킨다는 구상이다. 전국이 연결되는 'AI 인프라 슈퍼 하이웨이(AI Infra Super Highway)'를 선도적으로 구축해 AI 생태계 활성화를 앞당기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한다는 전략이다.

글로벌 텔코 AI 얼라이언스(Global Telco AI Alliance) 회원사들과 개발하고 있는 통신 특화 LLM은 내년 상용화하며, SKT의 고객 센터와 T월드 등 고객 서비스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AI 개인비서 서비스 '에이닷' 누적 가입자 수는 8월 대대적인 개편에 힘입어 한 분기 동안에만 100만 명이 증가해 9월 말 기준 550만 명을 돌파했다. 10월에는 T전화에 AI 기능을 접목한 '에이닷 전화'로 변경하고, 에이닷의 PC 버전인 '멀티 LLM 에이전트'를 선보이는 등 전화부터 LLM 검색까지 AI 개인서비스의 영역을 빠르게 넓혀가는 중이다.

모바일 사업에서는 9월 말 기준 5G 가입자가 1,658만 명을 기록, 5G 고객 비중이 73%로 높아졌다. 유료방송 가입자는 962만 명,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는 711만 명을 확보했다. 3분기 로밍 고객은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한 약 136만 명을 기록했으며, 지난 해 6월 출시한 가족로밍 요금제 큰 인기를 얻으며 로밍 이용자 성장을 견인 중이다. SKT는 최근 로밍 고객 대상 혜택 프로그램인 '클럽 T로밍'을 론칭했으며, 차별화된 로밍 서비스를 통해 신규 고객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엔터프라이즈 사업은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사업 확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8% 성장했으며, 특히 클라우드 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라는 높은 성장을 기록했다. 엔터프라이즈 AI 사업도 다양한 업종에서 의미 있는 수주 실적이 이

어지고 있어, 향후 B2B 사업의 핵심축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3분기 배당금은 주당 830 원으로 확정됐다.

SKT 김양섭 CFO는 “현재 3가지 돈 버는 AI 사업에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통신과 AI, 두 핵심 사업 성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업가치를 키워 나가는 한편 주주환원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첨부 1> 연결 손익계산서 요약 (단위: 억원)

구분	24.3Q	23.3Q	YoY	24.2Q	QoQ
매출	45,321	44,026	2.9%	44,224	2.5%
영업이익	5,333	4,980	7.1%	5,375	△0.8%
순이익	2,802	3,082	△9.1%	3,502	△20.0%

#### <첨부 2> 별도 손익계산서 요약 (단위: 억원)

구분	24.3Q	23.3Q	YoY	24.2Q	QoQ
매출	32,032	31,484	1.7%	31,915	0.4%
영업이익	4,570	4,071	12.3%	4,504	1.5%
순이익	2,224	2,504	△11%	2,803	△20.7%